



우천 속에서도 빛났던 ‘테니스 클래식’ 제16회 KEB하나은행 코리아오픈

국내 유일의 WTA투어 대회 2019 KEB하나은행 코리아오픈(총상금 25만달러)이 지난 9월 22일 캐롤리나 무호바(체코)의 첫 투어 우승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WTA투어 등급 중 가장 낮은 인터내셔널임에도 코리아오픈은 올해 16회를 맞이하기까지 WTA와 선수들 사이에서 호평을 얻고 있는 대회였던 만큼 이번에도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해 코트를 뜨겁게 달구었다. 지금부터 9월 16일부터 일주일간 서울 올림픽공원 테니스장에서 펼쳐졌던 2019 코리아오픈의 일회일비를 다시 살펴봄에 그때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자. 글 사진_김진건 기자



세계적인 선수들의 출전, 하지만...

해외 선수들이 선호하기로 소문난 코리아오픈이었던 만큼 올해도 정상급 선수들의 출전 소식으로 인해 국내 팬들의 심장은 두근거렸다. 스테파노스 차치파스와 함께 그리스 테니스를 이끄는 마리아 사카리가 톱시드를 받고 출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개막 전날 기자회견에서 사카리는 “투어 대회에서 톱시드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처음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새롭기도 하고 그만큼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밝히며 우승에 대한 다짐도 전했다.

사카리와 더불어 2017년 프랑스오픈 우승 후 코리아오픈에 출전해 국내 팬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으며 정상에 올랐던 엘레나 오스타펜코(라트비아)도 다시 한국을 찾았으며 세계 2위 캐롤리나 플리스크코바(체코)는 쌍둥이 언니 크리스티나와 복식에 출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팬들의 기대



도 한층 높아졌다.

하지만 본선이 시작되고 실망스러운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이자 톱시드였던 사카리가 본선 1회전을 앞두고 오른손목 부상으로 기권했다. 게다가 2015년 우승자 이리나 카멜리아 배구(루마니아)에 이어 오스타펜코까지 모두 초반 탈락하며 기대를 모았던 선수들이 일찍 한국을 떠났다.

국내 선수들의 부진... 팬들의 응원을 한 몸에 받았던 새로운 스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리아오픈에 출전한 한국 선수들의 패배 소식이 전해졌다. 예선에 출전했던 선수 중 유망주 박소현(CJ제일제당 후원)을 제외하고 모두 단 1승도 거두지 못했다. 박소현은 예선 2회전에서 탈락했으며 와일드카드를 받고 본선에 직행한 한나래(인천시청)와 최지희(NH농협은행)도 아쉽게 패배했다. 지난해 코리아오픈 복식 우승을 함락했던 한나래와 최지희는 이번에도 함께 출전해 복식 타이틀 방어를 노렸지만 부담이 컸던 탕인지 왕야판(중국)-로라 피고시(브라질)에게 3-6 3-6으로 패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자연스럽게 팬들의 응원은 코리아오픈의 새로운 스타에게로 옮겨졌다. 그 주인공은 165cm의 크지 않은 체구에도 지난 US오픈에서 인상 깊은 모습을 보여준 재미교포 크리스티 안(미국)이었다. 2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그녀는 와일드카드를 받고 본선에 직행했으며 대회 16강에서는 아나보그단(루마니아)을 상대로 0-6 6-4 7-6(2)으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8강에 올랐다. 지난 8월 무바달라 실리콘밸리 클래식 이후 투어 대회에서 시즌 두 번째 8강에 오른 크리스티 안은 경기 후 “상대의 적극적인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마인드 컨트롤을 했고 관중들의 많은 응원을 받아 이길 수 있었다”라며 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다. 비록 8강에서 에카테리나 알렉산드로바(러시아)에게 역전패를 당했지만 관중들은 크리스티 안의 선전과 앞으로의 활약을 응원했다. 그녀는 “관중들의 응원에 매우 놀랐다. 크리스티 말고 혜림(한국 이름)이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테니스를 하며 랭킹에 신경 쓰기보다 미국에 있는 한인 2세나 아시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다”라고 전하며 끝까지 팬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밝은 미소를 보였다.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주었던 크리스티 안





단식 우승자 무호바



복식 우승 아루아바레나-마리아

우천에 지연되었던 결승... 기다림 끝에 탄생한 코리아오픈 우승자

마지막 결승 무대만을 앞둔 9월 22일, 낮 2시부터 펼쳐질 예정이었던 단, 복식 결승은 우천으로 인해 기다림의 연속이었다. 계속되는 비로 인해 대회장을 찾은 팬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경기가 언제까지 연장될지 알 수 없었으며 다음날 출근이 기다리고 있는 월요일이라는 점에서 관중들이 경기장을 떠나도 이상하지 않았지만 팬들의 의지는 꺾일 줄 몰랐다. 결국 여자 복식은 오후 6시부터 실내에서 열렸으며 단식은 그 이후로 미뤄졌다. 그럼에도 복식 결승을 보기 위해 찾아온 팬들로 인해 실내 테니스장은 가득 찼으며 늦은 시간에 펼쳐진 단식 결승에도 관중들은 기다림을 반복했지만 자리를 지켰다.



팬 서비스가 돋보였던 무호바

한국 팬들의 테니스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던 코리아오픈 마지막 날이었다. 복식 결승에서는 라라 아루아바레나(스페인)와 타티아나 마리아(독일)가 접전 끝에 정상에 올랐다. 결승에서 보여준 환상적인 호흡에 관중들은 박수와 환호로 보답했다. 팬들의 응원 속에 정상에 오른 두 선수는 기쁨을 감추지 않았으며 “내년에 꼭 다시 코리아오픈에 출전해 타이틀을 방어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어느새 어둠이 찾아오고 센터코트의 조명만이 빛나는 저녁 드디어 코리아오픈 단식 결승전이 펼쳐졌다. 올해 뒤편던 8강에 오르며 돌풍을 일으켰던 무호바와 코리아오픈 첫 출전임에도 단숨에 결승까지 오른 마그다리네테(폴란드)의 경기를 본다는 생각에 관중들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빛났다. 경기 결과는 한 수 위의 기량을 선보인 무호바의 압승이었다. 기다렸던 만큼 치열한 접전은 아니었지만 팬들은 레네테에게 격려의 박수를, 무호바에게는 축하의 환호를 아끼지 않았다.

무표정한 얼굴로 누구보다 냉정하게 경기를 펼치지만 경기가 끝나면 관중에게 다가가 따뜻한 팬 서비스를 보여줬던 무호바는 우승을 차지한 뒤에도 밝은 미소와 함께 팬들에게 인사했다.

그녀는 “첫 투어 우승을 거두어 매우 기쁘다. 날씨 때문에 결승을 할 수 있을지조차 확실치 않아 경기를 마친 뒤 안도감이 가장 먼저 찾아왔다”라며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경기를 직접 보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놀랐고 고맙다. 이런 멋진 분들 앞에서 경기할 수 있어 정말 행복하다”라고 전했다.

이번 코리아오픈 현장을 찾은 테니스인들은 자신이 얼마나 테니스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줬다. 첫 투어 우승을 코리아오픈에서 기록한 무호바의 말처럼 이번 코리아오픈은 멋진 사람들의 응원 속에서 펼쳐진 멋진 선수들의 경기가 만들어가는 대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

코리아오픈 포토 컬렉션



코리아오픈을 찾은 이형백, 이덕희, 서울시체육회 주원홍 부회장(왼쪽부터)



KATA 성기춘 회장이 코인 토스를 하고 있다



테니스 사랑으로 유명한 배우 이창훈



우천에도 자리를 지킨 관중들